



국내소식

한국도서관학회

1991년도 정기총회개최

한국도서관학회는 1991년 12월6일 이화여자대학교 미관식당에서 1991년도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동총회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1년도 사업실적보고
- 1992년도 사업계획
- 출판기념품 증정
- 한국도서관학회 학회명칭 변경

한국정보관리학회

1. 추계학술발표회 개최

정보관리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이 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도서관인의 동참을 꾀하는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추계학술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가. 일시: 1991년 11월 16일(토) 오후 2시

나.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세미나실

다. 주제발표내용 및 발표자.

- 문헌 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학문적 연관성 고찰: 정동열 (이화여대도서관학과)
-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탐색자의 탐색형태에 관한 연구: 장혜란 (상명여대 도서관학과)
- 우리말 정보 자료를 처리하는 지능형 정보 검색 시스템의 설계: 정영미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2. 공칭회 개최

동학회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요청에 의하여 KORMARC의 KS화를 위한 MARC포맷 및 기술규칙(안)을 완성하고, 이안에 대한 공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가. 일시: 1991년 12월 12일(목) 오후 2시

나.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

다. 발표내용 및 발표자(연구책임자 포함)

- KORMARC(단행본)포맷 및 기술규칙 개정안
연구책임자: 이두영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발 표 자: 최석두 (이화여대 도서관학과)
- KORMARC(연속간행물) 포맷 및 기술규칙 개정안
연구책임자: 현규섭 (공주대 도서관 교육과)
발 표 자: 현규섭 (공주대 도서관 교육과)
- KORMARC(비도서자료) 포맷 및 기술규칙 개정안
연구책임자: 사공 철 (숙명여대 도서관학과)
발 표 자: 김태수 (한남대 도서관학과)

문 화 부

출판문화진흥 세미나

오늘의 출판문화를 진단하고 2000년대 출판진흥정책을 함께 생각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출판문화진흥 세미나가 “2000년대 출판진흥 정책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대주제 아래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1. 일시: 1991년 12월 23일(월) 오후 2시

2. 장소: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4층)

3. 주제발표내용 및 발표자

- 제1주제발표
2천년대 출판진흥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김경동
- 제2주제 발표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출판의 국제화 전략/백승길

대한출판문화협회

간담회 개최

출판·서적상계 최대 현안과제인 출판유통체제의

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도입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제도와 판매시점정보관리(POS)제도를 출판·서적상계에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1991년 11월 26일(화)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 1층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 간담회 주제발표

- 정부의 유통 현대화 정책기조(상공부 유통산업과장)
- 출판유통의 현황과 문제점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나춘호)
- ISBN·POS도입과 유통현대화 방향(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이두영)

2. 성공사례 발표

- 출판계 (영진출판사 대표 이문철)
- 서적계 (태평서적 대표 이진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실무자 간담회 개최

국내도서, 잡지, 주간신문 및 만화의 품위유지와 윤리향상, 청소년의 정서순화와 양서 권장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동위원회는 관계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구함과 아울러 당면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1991년 12월 13일(금) 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호남교육신문

호남교육신문은 1991년 11월 25일(월)자 7면에 “공공도서관 재정확보 절실”이란 대주제와 함께 “도서관이 못해 개관 늦어...장흥·나주” “편의시설 뒷전·인건비 추당 빠듯” “관리기관 일원화 되어”라는 소주제를 게재하면서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전남도 교육청 관내 일부 공공도서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다.

全南도교육청 관내 일부 공공도서관이 계구실을 못하고 있다.

全南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지

적·정서적 발달과 교육문화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정보·문화자료 제공센터로서의 역할을 위해 건립된 공공도서관이 예산부족 등으로 이미 건물을 완공해 놓고도 열람할 도서가 없다는 이유로 개관을 못하고 있으며 개관된 도서관은 장서구입 및 편익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는등 도서관 구실을 못하고 있다.

장흥군 교육청은 지난 11월 5억원을 들여 3층규모의 건물을 착공 지난 8월에 건물을 준공했으나 2개월이 넘도록 예산이 부족하여 열람할 도서를 구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관을 못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으며 나주교육청관내 나주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이다.

목포 학생도서관은 지난 82년 개관 목포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도서관의 장서 7천여권중 90% 이상이 개관당시 구입한 도서로 이중 30~40% 정도는 폐기처리해야 할 형편으로 알려졌으며 담양공공도서관도 지난해 10월 교육부의 지원금을 받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도서관은 겨우 7백 50권의 장서만 비치해 있어 공부방 역할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의 한관계자는 『이같이 공공도서관이 무성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건물은 국고 지원금으로 충당되지만 도서관에 비치할 각종 장서구입 및 냉난방 시설등은 예산이 부족하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인건비충당에도 빠듯하다며 지역의 뜻있는 독지가의 기증을 받아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서관개관

햇빛도서관 개관

기독교선교 햇빛재단은 목회자들의 연구와 선교활동 등을 지원하는 햇빛도서관을 1991년 12월 7일(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햇빛선교회관내에 개관하였다.